‘죽든 살든네 탓이다’ 하고 딱 놓는 것이 사는 길이다

☞ A19면에서 계속

는 몸은 각각 있으니 어디까지나 사람이 사랑하면서 또는 화목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가정이 다 화목하게 지낸다면 얼마나 복이 들어오며 얼마나 공덕을 이루겠습니까? 그렇게 할 줄 안다면 한 나라를 지킬 수도 있고, 세계를 관해서 볼 수도 있고, 우주를 탐험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 하나가 여러분의 분신을 수만 개를 만들 수도 있고, 들이고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여러분 앞에 자꾸 전달을 해도 여러분이 실천 한 번 해 보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이요, 그것을 한 번도 실험을 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칼싸움을, 무술을 잘하던 사람은, 칼로 항상 맞아 보기도 하고 때려 보기도 한 사람은 강도가 들어와도 눈도 안 깜짝거리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한 번도 당해 보지도 않은 사람은 칼을 들고 들어오면 부르르르 떱니다.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즉 말하자면 번연히 이것이 떡그릇이라는 걸 알면서도 한번 떡그릇에 엎드러져 보는 것도, 그것도 참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인공 자리를 스스로서 믿고 물러서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소설이나 영화를 제작할 때 주인공을 딱 찍어 놓죠. 찍어 놓으면 그 주인공은 영화가 다 끝나도록, 소설을 다 보도록 죽을 둥 살 둥 하면서도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찍어 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게끔 해 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유스럽게 주인공으로서 딱 모든 걸 관해 봐서 나에 관한 건이라든가, 자식에 관한 건이라든가, 국가에 관한 건이라든가, 이 세상을 관해서 보려면 세계를 똑바로 봐야 하고 또 보이지 않는 데 우주적으로도 다른 혹성의 세계를 관찰해야죠.

그렇게 관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차츰차츰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봐서 딱 찍어 놓는다면 그대로 법이에요. 그런데 내 몸도 그렇고 죽느냐 사느냐도 자기 마음대로지 구태여 그것을, 그러니까 소설의 주인공으로 하나 점찍어 놓으면 되듯이, 영화 속에서 다 죽어도 그 주인공 하나만은 살 수 있도록 찍어 놓는다면 여러분이 왜 걱정 근심을 합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거는 극치적인 삶에 의해서 부처님의 법이며 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자에 명주옷 입고 무명옷 입었다고 해서 전자의 명주와 똑같아야 하고 전자의 명주를 입어야 하고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린 발전을 하려면, 즉 명주도 지금 실크로 만들어서, 실크만 만들어서도 아니 됩니다. 고상하게 색채를 다 내서 또 꽃을 만들어서 다 조화를 이루어서 딱 상점에 내놔야 잘 팔리겠죠. 이름은 바꾸어졌으나 그 근본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할 텐데 지금 가르치는 것이 명주, 무명 고대로 그냥 가르치고 있으니, 실크가 벌써 나왔는데 명주 가르치니 어떻게 합니까? 이거 오죽이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 부처님 법을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더 숭상하고 있는 판국인데 우리 국내에서 부처님 법을 삼백 년, 오륙백 년 뒤떨어지게끔 해서 쓰겠습니까? 앞장서도 지금 서럽다고 할 판국에 그래 뒤떨어져서, 한 오륙백 년 뒤떨어져 가지고서는 그때에 가서 “아이구, 부처님! 저를 살려 주십시오. 저의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식 잘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복으로써 비는 것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또 스님네들도 그냥 경을 가르쳐 주는 강원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 스님네들도 앞으로는 명주, 그 한 마디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근본은 똑같으니 실크로 만들어 보자. 실크로 나왔으니 실크라는 이름이 바로 명주라는 걸, 양면을 가르쳐 줘야 된다 이겁니다. 실크에는 세상 돌아가는 대로 지금 모든 국민이 원하고 찾는 대로 꽃 모양을 놔서 세상에 내놔야 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나는 무슨 계획하고 하는 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이 공부를, 공부 아닌 공부를 하시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본래 스스로서 청정하고, 스스로서 체계가 서 있고, 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율도 없고 질서도 없고 청정함도 없는 게 진리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가? 부처라는 이름도 부수고 넘어가야 될 판국이죠.

이 커피잔이 만약에 부처의 이름이라면 커피잔을 부수고 들어간다 하는 건 뭘 뜻하느냐. 내가 이 커피잔에 물 들어 있는 걸 갖다가 마셔 버리면은 그냥 나하고 둘이 아니니까 이 커피잔의 이름을 말할 거는 없죠. 둘로 나누어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항상 나요, 바로 내가 급하면 커피잔을 들고 물도 떠 먹을 수 있고 커피도 먹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뛰어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로 비유했지만 잘들 새겨들으세요.

옛날에도 이런 예가 있었죠. 어떤 사람이 아침 일찍이 일을 하려고 나가 보니까 아, 새들이 모여서 지저귀고 있거든요. 이 소리도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중국 어디에서 그랬대요. 들은 얘기이기도 하고 보기도 한 얘깁니다. 현실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까마귀는 무의 세계의 영령들의 소식을 전해 주고, 까치는 지금 현실에 사는 사람들의 소식을 전해 준다는 유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전해 주는 거는 “아이구! 또 까마귀가 울어 댔으니 무슨 일이 벌어질까 두렵다.” 그랬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당신네 집에 오늘 저녁에 강도가 들어서 죽을 테니까 피하라고 피하라고 막 가르쳐 줘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겁니다. 못 알아듣고는, 강도를 당해서 사람이 죽었단 말입니다. “아이구, 그 까마귀가 와서 짖더니 이렇게 흉한 일이 생겼다.” 이겁니다. 왜 까마귀 탓을 합니까? 일러 줘도 못 알아듣는 자기 탓을 하지.

그리고 까치는 좋은 소식을 전해 준다고 그랬는데 좋은 소식뿐이 아닙니다. 일가친척 사기꾼이 오는데 까치가 까악까악 짖었다 이거야. 일가친척이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도둑질 아닌 도둑질을 해 간다 이겁니다. 그거는 또 좋은 소식입니까? 그러니 모든 이치가 다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던 거 마저 해야죠. 아침에 일찍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으려니까 아, 새들이 모여서 막 재잘대고 그러거든요. 잘 들어보니까 지금 어느 나라의 그 창고에 금이 있는데 그걸 도둑질을 해 내갈 텐데, 이 국고가 비면은 큰일 날 텐데 야단이라고 아, 이러면서 지지고 볶거든요. 그 사람이 가만히 들으니까 이거 큰 야단이 났거든요. 자기가 얘기해 봤던들 믿어 주지도 않을 거고, 이거 큰일 났다고 하면서 단숨에 쫓아갔습니다.

쫓아갔는데 아, 들어가질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들어가겠다고 해도 못 들어가게 하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밤에 조심하십시오. 이 국고가 빌 테니까 철저히 지키라고 하십시오.” 이랬더니 이 미친놈 보라고, “이 미친놈! 이놈아, 이 미친놈아! 네가 와서 그러는 걸 내가 가서 얘기하면 나도 미친놈으로 모가지 달아나가.” 그러니까 나 말 못 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날 저녁이 지나니까 정말 도둑을 맞았거든. 국고의 금덩어리가 그냥 다 나가 버리고 말았죠. 그거를 나라에서 찾느라고 온통 뒤집고 야단들을 했는데 그때의 그 생각이 문득 났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와서 그렇게 일러 준 게.

그러니깐 장군한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얘길 하니까 장군이 뭘 생각했느냐 하면, 그거를 찾을 생각은 안 하고 그놈이 그렇게 잘 들으니 내가 저걸 이용을 해서 ‘새가 뭐라고 그러는가, 어디 뭐가 있는가’ 이런 걸 알아서 내가 좀 더 나라에 이름도 올릴 겸, 돈도 벌 겸 해서 그 사람을 찾았어요. 아, 찾아서는 떡 “너, 아침마다 나가서 새소리를 들어라, 뭐라고 그러나.” 그렇게 시켜서 가서 들어 보니까는 “얘, 고놈 나쁜 놈인데 얼마 안 있으면 모가지가 달아나갈 거다.” 그러거든요. 허허허. 아, 새들이 그러고 하니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죠. 그럭했다 하면은 큰일 날 테니까. 쭈물쭈물하니깐 그냥 막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릇도 못 하겠다고 해서 몹쓸 고생을 하고 자기 부모까지 다 잃고 관가에 끌려가서 자기 가족도 몹시 매를 맞고 그래서 스스로서 그냥 목숨을 끊고 말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말을 잘못한다거나…, 물론 꼭 해야 될 말을 하는 것은 값있는 일이지만 말입니다. 말이란 건 잘 가려서 해야 됩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죠. 어느 집에 키우는 돼지들이 말을 하기를 “아, 저 집은 소를 팔아 왔는데 그 소 판 돈을 지금 가지고 있어. 저렇게 돈이 있는데도 가난한 척하고 있잖아?” 하고선 말을 하거든요. 돼지들이 꿀꿀꿀꿀 해도요, 그 가정일들을 다 알거든요. 돼지밥을 갖다 주는데 꿀꿀꿀꿀 하곤 돼지가 돼지물을 먹으면서 아, 서로 고개를 이러면서 하거든요. 소를 팔아 왔는데도 우리 밥은 물만 준다 이거죠, 물만 준다. 하하하.

그래서 그 소릴 들은 사람이 하도 우스워서 껄껄대고 웃다가 옆 사람이 “넌 미친놈처럼 왜 웃니?” 그러니까 무의식중에 그 소리가 나온 겁니다, 무의식중에. “아, 글쎄, 돼지들이 말이야, 밥을 먹으면서 이 집이 소 판 돈이 있는데도 먹을 걸 이렇게 안 주고 그냥 뜨물에다가 만날 술지게미만 줘 가지고선 우리들을 취하게 만들고 못 살게 만든다.” 이러더라고 껄껄대고 웃었단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 불쑥 나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가족을 다 잃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현실에도 저 까마귀나 까치처럼 사생의 말 못 하는 것들도 그 뜻을 모두 듣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참, 오백 나한을 만든 자체도, 소로 변장을 하고 나와서 그렇게 도를 닦고 있다가 다시금 보살로서 등장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적 떼들 오백 명을 부처님 앞에 귀의하게 만들어 놓고 그랬다는 얘기를 여러분은 다 잘 아시니까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공부하는 여러분은 제가 쓸모 있는 말이든 쓸모없는 말이든, 쓸모없는 말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하치않은 말이라도 좀 더 믿으신다면 이 ‘컵’이라는 질서 있는 이름을 말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목마르면 물 마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기를 수 있는 인연이 될 겁니다. 그럼, 오늘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8년 9월 18일 정기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놓는 다는 건
첫째, 진실히 자기 자성, 자체 불성을 믿어야 하고
둘째, 물러서지 않아야 하고
셋째, 그대로 믿고 활용하고 밀고 넘어가야 된다는 뜻이다.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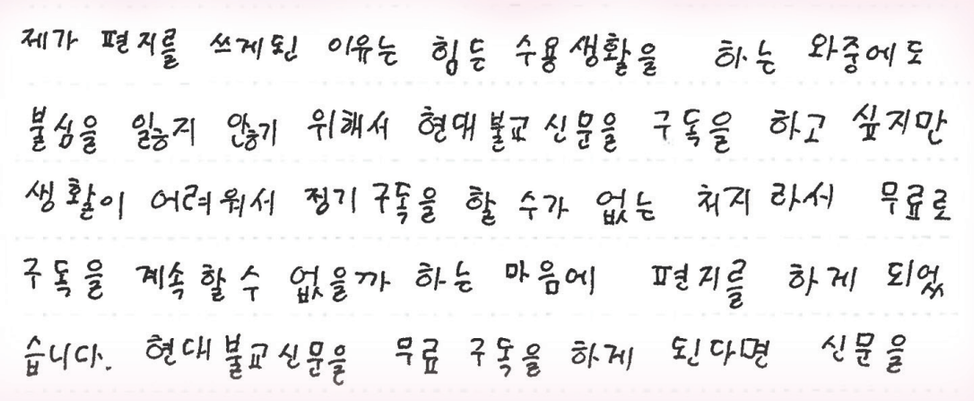
귀하의 매월 1만원으로 어려운 곳의 불자는 매주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계좌 053-01-269050(농협, 예금주 현대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편집장님께

저는 00교도소에 수용중인 수용자 000이라고 합니다. 제가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00교도소에서 불자 000 올림.